

학회소식

1. 제90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2009년 12월 19일(토) 오후 2시~69시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회의실

- 제1주제 《特敎定式》의 내용과 성격
 발표자: 조지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주제 辛卯約條에 대한 再考
 - 조선측에서 보는 《館守日記》 寶永7年 2月 10日條 -
 발표자: 김민정(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2. 제2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

2009년 12월 19일(토) 오후 5시부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회의실에서 제2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을 거행하였다. 이 상은 2008년 朴秉濠 명예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께서 후학을 격려하고 학회의 발전과 법사학의 진흥과 이를 통한 법문화의 창달을 위해 출연한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학술상의 종류에는 우수상과 신진상이 있지만, 금회에는 규정에 따라 법사학분야와 고문서학 분야에 대한 신진상만 수여하였다. 제2회 수상논문과 수상자, 선정이유 및 수상소감은 다음과 같다.

신진상: 「조선시대 《大明律》 違令條의 적용사례 연구」, 『法史學研究』 제37호(2008. 4)

수상자: 金大洪(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博士課程, 미국 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연구원(Visiting Fellow))

선정이유: 이 논문은 《大明律》 違令條의 적용사례를 조선왕조실록에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1) 주제 설정의 적실성, (2) 사료 취급의 포괄성, (3) 사료 가공의 독창성, (4) 역사재현의 타당성 등의 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5) 법학적 관점의 충실도에 있어서 법사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우수성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시대의 역사 이해 전반에 대한 기여도의 면에서나, 후속연구를 촉발 내지 자극하기에 충분한 흥미유발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면에서나, 다른 논문들보다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된다. 그 동안 《大明律》에 대한 연구는 수용과정 등 큰 주제에 머물렀으나, 이 논문은 특정조문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분석한 점에서 한국형법사 연구의 수준을 격상시켰으며, 이후 후속연구의 모범이 되는 논문으로 판단된다.

수상소감: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무슨 말로 감사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연구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정공식교수님께서 위령조에 관한 연구로 논문을 써 보라고 하셨을 때 대답을 바로 못 드리고 머뭇거렸던 생각이 납니다. 박사과정생인 제가 학술지에 과연 글을 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저하던 저에게 축구감독 히딩크가 한 말을 해주시며, “벤치에만 앉아있는 천재보다는 능력이 부족해도 실전경험이 많은 선수가 더 필요한 선수다.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능력이 부족해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아량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논문에 전념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정도 꼬박 논문에 매진했던 것 같은데 그때의 첫 경험이 두고두고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령조에 관한 주제로 연구자료를 정리하고 논문을 준비해 가면서 제 생각과

글을 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때의 바탕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하버드 엔칭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게 해 준 큰 밑거름도 되었습니다. 이곳 하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보고 있으면, 무언가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지엽적인 것만 같은 주제들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 큰 흐름과 조화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법학에서도 어떤 물음에 대해 논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추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 역사, 종교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한편의 실익과 한편의 논리라는 무게감에 다소 위축되어 있는 듯한 기초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주제넘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처음에 엔칭연구소에 제 연구분야를 legal history로 제출했었는데 연구소직원이 legal history가 생소했던지 제 소개 history로 적어놓아서 정정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rt history는 분명히 art history라고 하면서 왜 legal history는 구분을 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도 했지만, legal history를 legal history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순간이 꼭 오도록 해야겠다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으면 legal history를 꼭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큰 영광을 주신 심사위원들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기다려주신 박병호교수님, 정공식교수님, 조지만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할아버지, 아버지, 큰형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끝으로 함께 공부를 계속 해 온,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 갈 법제사 학형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수상자 김대홍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김영석 군(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이 대리로 수상하였다.

신진상: 「朝鮮後期 教旨僞造의 一研究」, 『古文書研究』 제30호(2007. 2)

수상자: 金銀美(고려대장경연구소 전임연구원)

선정이유: 이 논문은 조선시대 고문서 연구에서 기본 토대가 되는 문서의 진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 성과라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내용면에서도 조선시대 문서 위조의 중심이 教旨, 특히 武科 紅牌에 집중되었던 현상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위조의 각종 방법들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와 함께 실제 위조문서의 實例를 사진으로 소개하고 御寶를 중심으로 진품과 위조문서를 대조해가며 위조 판별법과 감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문서 연구를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문서의 진위 판별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학계에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기초 연구이며, 고문서학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심화시킨 수작으로 평가된다.

수상소감: 먼저 이 논문에 과분한 상을 안겨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처음 수상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저 개인의 이름으로 영산법사학학술상 신진상이라는 과분한 영예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꾸러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고문서 중에서도 위조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조선후기 교지라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사료와 실물을 통해 위조사례를 분석하였는데 무엇보다 위조된 고문서 실물사례의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실물 이미지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고문서 위조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는 미명 아래 실물이미지 자료의 제공을 부탁드렸을 때 아무대가 없이 기꺼이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고문서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으로 저의 연구에 힘을 실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저의 학위논문인 「조선시대 문서 위조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이며, 그 첫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교수님이신 영산 박병호교수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고문서 위조라는 분야의 연구를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평소 한국고문서학에 있어 위조분야는 빠른 시일 내에 연구 성과가 나와야 할 분야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고문서 감식에 경험이 많은 석학이 해야 할 일이지 저와 같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 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장벽을 만날 때마다 길을 내어주셨던 박병호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끄럽지 못한 문장의 표현과 논리의 전개를 자신의 일처럼 밤새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었던 동학들에게도 말로 다하지 못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산법사학학술상 신진상은 저에게 과분한 영예입니다. 이 영광을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저 개인에게 주신 영예의 무게를 덜고자 합니다.



